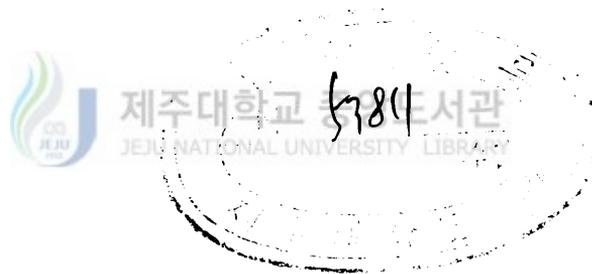


M
315.419
73560

碩士學位請求論文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統一教育의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高 性 孝

1996年 8月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統一教育의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高 性 孝

高性孝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초록〉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統一教育의 方向

高 性 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본 연구는 통일의 이상과 당위 그리고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두고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인 반세기 동안의 분단상태에서 심화되어 온 ‘민족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개념을 정립했고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분석했으며, 여기에 독일의 교육통합과정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새로운 통일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서로를 포용하려는 의식을 교육시켜 주는 일이다. 통일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무수한 갈등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둘째는 민족동질성 회복 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이 ‘국토의 통일’을 이룩했지만 ‘사람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통일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생활문화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통일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는 양보와 포용, 민족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는 강제성이 아닌 각 개인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판단 문제이며, 이런 도덕적 판단능력은 훈련에 의해 고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주입식 수업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따라 탐구식 수업 모형, 토론식 수업 모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수업 모형, 개념 수업 모형, 비교 분석 모형 등 아동 중심의 수업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급격한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질높은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현직교사들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 중심의 자생적 연구회를 조직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로 하여금 북한 및 통일관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통일의 꿈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일교육 센터(또는 민족화합 센터)를 지역별로 건립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공유를 꾀해야 한다.

目 次

抄錄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II. 民族同質性 回復과 統一의 意義	4
1. 統一의 目標와 當爲性	4
2. 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6
3.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最近의 努力	9
III.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11
1. 統一教育의 目標와 內容	11
2. 獨逸의 教育統合과 示唆點	16
3. 統一教育의 問題點	20
IV. 統一教育의 새로운 摸索	24
1. 統一教育의 方向	24
2. 統一教育의 基本 內容	28
3. 統一教育의 實行 方案	33
V. 要約 및 提言	54
參考文獻	57
Summary	61

表 目 次

〈표 1〉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변천	14
〈표 2〉 통일안보 교육의 수업모형	35
〈표 3〉 통일교육의 모델	37
〈표 4〉 연간 지도계획 (예시)	39
〈표 5〉 초등학교 도덕과 보완 내용	41
〈표 6〉 집단탐구 수업모형 준거안	43
〈표 7〉 남북한 정치이념 및 체제	49
〈표 8〉 경제제도 및 정책	49
〈표 9〉 남북한 사회제도	49
〈표 10〉 남북한 교육 이념	50
〈표 11〉 남북한 교육 내용 및 방법	50
〈표 12〉 남북한 문화 출판 및 언어	50
〈표 13〉 북한에 대한 지도 관점	51
〈표 14〉 6.25전쟁에 대한 지도 관점	51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최근들어 북한의 政治·經濟的 危機現狀이 외부로 알려지고 북한을 탈출하여 서방이나 우리 나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내적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차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인식으로 와 닿는 데는 단순히 탈북자의 수가 늘었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탈북자의 구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최근의 탈북자들을 보면 外交官, 科學者, 作家, 空軍 操縱士, 黨官僚, 유학생 등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비교적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이같은 인식을 갖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과거의 추상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統一을 준비할 때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없이 統一을 맞이하면 그만큼 우리가 감내해야 할 충격도 예상 못할 정도로 혹독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30년 이상을 꾸준히 교류하면서 統一에 대비해 온 獨逸조차도 막상 統一이 되고 보니 동서독간의 격차에서 오는 충격을 해소하는데 지금까지도 완전히 回復을 이루지 못했음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이 가져올 충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그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가야 할 것이다.

統一은 領域과 課題에 따라서 國土의 統一, 體制의 統一, 사람의 統一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나누어 있는 남북한을 하나의 國家로 統一하는 것이 國土의 統一이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상징되는 制度, 法, 社會組織 등의 統合은 體制의 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統一은 인간과 사회의 統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의식, 가치관, 생활양식의 統一을 뜻하며 인간사회를 규제하는 내면적이고 형이상학적 영역의 統一을 말하기도 한다.¹⁾

국토의 統一과 체제의 統一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1) 한만길(1996),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우리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주최, 제2회 통일교육 세미나(96. 6. 12) 주제발표 논문, pp.17-18.

사람의 統一은 國土의 統一이나 體制의 統一보다는 훨씬 장기간을 요하며, 그 노력의 효과가 겉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남북한이 분단체제를 지속하면서 이념과 가치관, 의식과 生活樣式 등이 심하게 다른 모습 등을 띠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同質的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사 국토와 체제가 하나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의식과 가치관이 서로 달라 융합이 안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民族統一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동안 남북한은 冷戰時代를 지내오면서 相互不信과 對決意識을 가져왔고, 6.25 전쟁을 비롯한 많은 무력충돌은 적대감을 심하게 심어 내면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불신과 적대감, 부정적이며,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統一의 先決課題이다. 외형적인 統一을 이룩했다 해도 내면적인 갈등과 대립의식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民族統一은 성취된 것이 아니다.

비록 50여년동안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한은 일 천년 이상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같은 언어, 같은 전통문화를 지니고 동류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같이 해왔다.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民族共同體의 구성원이라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따라서 사람의 統一은 바로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단일성 回復, 즉 '우리 의식' 단위의 단일성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²⁾

따라서 統一教育은 바로 남북한 사이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진정한 民族和合을 목적으로 해야하며, 教育 內容도 이 방향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本 論文은 위의 問題 意識을 가지고 기존의 統一教育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學校 統一教育의 方向을 새롭게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教育方案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주제에 따른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統一與件의 變化에 따른 統一의 意味를 재조명하고, 民族同質性을 되찾기 위한 최근 우리사회 활동을 검토했다.

2) 이상우(1995), "통일문제의 이해,"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나남출판, pp. 118-119.

제3장에서는 統一獨逸이 주는 教育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民族同質性回復을 외면한 과거 統一教育의 目標, 內容 및 問題點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統一教育의 개념을 정립하고 統一教育의 方向과 기본 내용을 摸索하였으며 학교 統一 教育의 실제적인 實行方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효과적인 統一教育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주로 했다. 선행연구자료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료는 우리의 統一 教育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글들이고, 두번째는 統一 獨逸 과정과 그 후의 統一 獨逸사회가 안고있는 教育的 문제에 대한 분석들이다. 이외에도 獨逸이 統一된 후 겪고 있는 제반 변화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쓴 獨逸 統一 현장 방문기를 주로 분석 자료로 삼았다. 아울러 教育現場에서의 각종 방법과 자료를 인용하여 나름대로 창의적인 教育方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民族同質性 回復과 統一의 意義

1. 統一의 目標와 當爲性

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統一은 韓民族의 단일성 回復이며, 또 民族的 成員에게 있어서는 삶 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이던 민족이 둘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는 현실은 韓民族 成員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다. 統一은 무엇보다도 앞서 추구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산 가족에게 있어서는 統一이란 자기 삶의 완성이고 고향을 찾는 자기 回歸를 뜻하기 때문에 개인차원에서 보면 삶 그 자체의 回復을 의미한다. 당위로서의 統一은 단순한 民族 再結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統一은 단순한 분열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분단시대를 역사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민족 도약의 출발을 의미한다. 同族間의 지속적인 자해행위 속에서는 韓民族이 다음 세기에 새로운 民族自尊時代를 열어보려는 꿈을 바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나은 統一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민의 숙명적 과제이다. 그러나 統一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統一은 남북한 사회의 현황, 國際環境 등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다듬어져야 비로소 실천 가능한 목표이다. 統一은 왜 해야 하나? 統一은 무엇을 하나로 하자는 것인가? 統一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이며 또한 統一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누가 統一의 主體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주도하는 統一은 가능한가? 統一을 추진할만한 준비태세는 갖추어져 있는가? 統一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어떤 순서에 따라 統一 노력을 펴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이 統一의 당위를 논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 統一은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統一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韓民族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韓民族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싶다는 소박한 동포애, 특히 北韓同胞에 대한 愛情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³⁾ 북한의 현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며 한국이 추구하는 體制가 진정으로 북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韓民族

3) 상계서, p. 116.

成員의 삶을 더 보람있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데 대한 확신이 전제된 속에서 統一, 즉 民族社會의 再統一을 갈망하는 것이다. 統一의 當爲는 결국 북한 주민에 대한 同胞愛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주민과 領土를 한국의 統治權 아래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대한 국가가 되어 좀더 좋은 조건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단순한 公利的인 발상에서 統一의 당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남쪽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나누어 갖게 하자는 愛他的 同胞愛에서 統一의 當爲는 시작된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남이 아닌 동포라는 인식, 그리고 동포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統一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이다.

韓民族의 統一은 또한 민족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과제이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민족사의 성원 개개인에게 가족 분단의 고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많은 제약물 가져다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를 경계하는 군비의 유지, 외교적 소모전,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 등은 민족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사회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民族統一은 한민족이 굴종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統一의 당위를 고려하면서 統一문제를 보게 되면 한국이 추구해야될 統一이 어떤 統一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분명해진다. 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북한 주민을 包容하는 식의 統一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서는 것이다. 아무리 統一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고른 福祉를 누리며, 동등한 政治參與의 機會를 누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統一에 先行하는 것이며, 統一의 目標가 되는 것이다.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공리적 가치이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남과 북의 이념적 타협을 통해서 統一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統一문제에 있어서 지도이념에 관한 현재의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 체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統一이 급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한국의 統一정책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4) 상계서, p. 353.

북한이 내세우는 統一의 當爲는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 있다. 북한은 1945년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남한은 일종의 지배를 승전한 미국에 의해 다시 강점 당했다는 시각에서 <못다 이룬 남반부 인민의 해방>을 統一로보고 있다. 統一의 주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인민계급에 속하지 않은 많은 수의 남한 민족사회 성원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한민족 전체 화합을 통해 統一民主共和國 건설에 統一目標을 두고 있다. 즉, 민족사회의 단일화를 이루어 민족내부에서의 대립투쟁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민족사회 발전에 참여하게 하며, 또한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구성원이 균점하도록 하는 데에 統一의 目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統一의 당위는 <남북한 주민의 조국근대화 작업에 동참>에서 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統一 當爲論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민족적 과업인 <獨立되고 統一된 近代의 民族國家 建設>이라는 巨視的인 眼目, 즉 분단 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민족사의 전개 차원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구성원의 존재 이유를 민족 구성원의 생존과 행복에 두어야 하며, 근대적 민족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민주참여의 기회를 가지는 近代의 國家 建設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민족성원의 일부인 북한주민들을 당연히 동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統一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統一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근대적 民族國家 建設의 先決條件의 하나인 것이다.

2. 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한민족은 일천 년 이상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같은 언어, 같은 전통 문화를 지니고 동류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같이 해왔다. 같은 언어 民族成員들은 모두 하나의 民族共同體의 구성원이라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統一은 바로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단일성 回復, '우리 의식' 단위의 단일성 回復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民族統一'이다.

한민족은 신라의 三國統一 이후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문화공동체, 民族共同體의 범위와 政治공동체의 범위가 일치한다. 한민족의 의식 속에는 국가와 민족이 하나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는 같은 민족이 복수국가를 이루고 사는 예도 많고 또한 반대로 복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예도 많다.

족, 민족과 국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한민족에게는 두 개 국가체제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민족은 하나의 국가 속에서 살기를 희망한다.⁵⁾

남북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統一의 成就是 민족적인 과제의 완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전체가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서게 됨은 의미한다. 그 동안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民族社會 構成員의 삶과 民族社會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사회의 모두에게 앉겨왔다. 따라서 만약 統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균형된 발전의 바탕을 확립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남북한의 統一은 규모의 결과에 따라 이익과 분단에 따른 각종 비용의 절감, 각종 제약요인의 해소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한민족에게 가져다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統一이 우리 민족에게 무지갯빛 밝은 미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統一對備教育을 소홀히 했을 때 민족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많은 준비를 거쳐 統一을 이룩한 獨逸이 統一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統一後遺症'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국토나 제도의 統一이 아닌 '사람의 統一'로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統一'을 논하기에 앞서 '統一'과 '民族同質性 回復'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흔히 統一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 왔다. 또한 이같은 統一 概念 정의의 방식은 다음에서 보듯이 남북 양측이 제기하는 統一方案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첫째,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위시한 우리 나라의 統一案에서 보이듯이 남북의 양체제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의 1국가 1체제가 된 상태를 統一이라 보는 경우가 있고, 둘째, 북한이 그 동안 줄곧 제시해 온 고려연방제통일안에서 볼 수 있듯이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를 統一로 보는 경우도 있다.⁶⁾

그런데 우리 나라가 주장하는 統一은 國家 및 體制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귀

5) 상계서 p. 118-119.

6)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영식(1995), "남북한이 통일정책,"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참조.

착되는 것으로서 첫번째 정의의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첫번째의 개념도 분단 직후에는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분단 후 5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과거로의 회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단순한 북고주의적 統一을 외치기에는 이미 사회의 구조화 정도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이다.⁷⁾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함과 동시에 현 기득권 층의 대폭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변화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는 세력과 손해를 보는 세력이 대두하여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統一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체제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일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민족사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0여 년 가까이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는 統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國土統一도 아니고 두 개의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國家統一일 수만도 없다. 새로운 民族共同體를 만드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새로이 설계하는 개념으로서 統一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⁸⁾

한편 民族同質性を回復한다 함은, 生活樣式 및 의식자체의 同質性を回復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체제의 제도적, 기계적 통합이라는 의미의 統一을 실현하기 이전부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체제의 統一을 거쳐야 비로소 완결될 수 있는 작업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同質性を回復한다고 하면 북고주의적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앞서의 未來指向的 統一개념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民族同質性回復을 民族‘同質性創出’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

7) 해방후 남북한의 체제구조화와 이질화의 정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47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특별기획으로 「광복이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상과 이질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정세현(1991), “통일한국의 체제와 이념적 지향”,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참조.

9)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해서는, 김한초(1991),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참조. 이 책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계의 시각에서 통일의 미래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3.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最近의 努力

그 동안 상당히 심화되었던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활동을 살펴본다.

1) 國語情報學會의 活動

북한과 우리는 같은 한글을 쓰면서도 그 사용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전 배열순서가 다르고, 한글정보화에 필수적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판배열이라든가 코드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南北交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교류가 원활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전산정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표준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국어정보학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상이한 글자 및 자판체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남북공통의 표준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남한의 국어정보학회와 북한측이 연례적으로 만나 이루어지고 있다.¹⁰⁾

2) 北韓學界의 動向分析 活動

북한학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우리 학계와 조율하려는 노력은 민족의 同質性回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결과는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확산되게 마련이다. 이것은 공동체형성을 위한 의식화에도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많은 업적을 내놓았는데, 최근에 이것들이 『統一대 비연구-국학분야 남북한 학술동향분석』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우리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에 북한에서도 과거에는 부인하던 단군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전향적인 변화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재 남북학계의 동향과 그 교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¹¹⁾

10) 이와 관련해서는 국어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불』 94년 10월호와 95년 10월호를 참고 하면 자세한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 이외에도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이라는 저서가 2권으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간됐다.

3) 持續的인 協力 努力

비록 政治的인 상황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는 있지만 북한 수재민 구호물자 교환이라든가, 남북물자교류 등도 이같은 노력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는 비록 휴전선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남북간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이재민 구호용 쌀을 남측이 북측에 전달한 사례도 있고, 이같은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본다.



III.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1. 統一教育의 目標와 內容

1) 統一教育의 性格 變化

統一教育은 명칭상으로 보아 '反共教育', '統一·安保教育', '統一教育'으로 변천하였다. 여기서는 '統一教育'의 변천과정을 재조명하여 反共論的 接近, 規範論的 接近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려고 한다. 시기상으로 볼 때 反共論的 接近은 '反共教育' 시기에 해당되며, 규범론적 접근은 '統一·安保教育', '統一教育' 시기에 해당된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統一教育은 反共論에 근거하였다. 反共論的 教育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 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측(남한 및 자유 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反共教育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적대감과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기도 하였다.

그 동안 명칭상으로 변화해 왔던 反共教育, 勝共教育, 滅共教育 등이 反共教育에 속한다. 反共教育은 미군정 시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해당된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수복 지구인 북한을 統一시킨다는 차원에서 統一政策을 추구하면서 反共教育을 실시하였는데,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 反共教育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다. 反共教育이 더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反共教育은 우선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모순, 북한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알리는 한편, 남한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反共教育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온 이데올로기 教育은 청소년들이 6·25 미경험 세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대남한 공산화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反共理念教育, 대북이념 무장의 형태로 전개되었다.¹²⁾ 당시의 反共教育은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긍정이라는 黑白 論理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

12) 정세구(1983), 「초·중·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육」, 교육과학사, p. 19.

정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이데올로기 教育은 북한에 대한 화해와 수용, 남한과의 협력, 통합과 같이 民族共同體인 화합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統一을 지향하는 마당에서 反共教育은 진정한 의미의 統一教育이라 보기는 어렵다.¹³⁾

규범적 접근은 1980년대 후반기에 統一·安保教育으로 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종래의 ‘反共教育이 反共論議와 統一論議’ 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상충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이 道德教育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⁴⁾ 이로써 제5차 教育課程 개정에서는 反共教育을 統一·安保教育으로 개칭하고 統一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統一·安保教育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統一環境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統一·安保教育은 統一教育으로 개칭되었다. 개정된 6차 教育課程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統一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統一 이후의 民族共同體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규범적 접근의 특징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統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북한 동포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의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統一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민족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統一에 대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統一教育의 변화를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석해 봤는데 다음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教育課程과 교과서에 있는 統一教育의 목표와 내용을 제4차 教育課程 시기부터 비교해 보려고 한다.

2) 統一教育의 목표.

제4차 教育課程에서는 도덕과의 목표진술을 두 학년씩 묶어서 하고 있다. 1~2학년에

13) 한만길(1994), “학교 통일교육의 사회학적 접근 모색,” 『통일문제 연구』 제6권 2호(통권 22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호.

14) 문용린 외(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15.

서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알고, 동족으로서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3~4학년에서는 “북한공산당의 잔인성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고, 북한 공산당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5~6학년에서는 “민주주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에서 1학년은 “나라와 겨레에 대해서 긍지를 심어 주고,” 2학년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싹트게 한다.”고 되어 있다. 도덕과에서 3학년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4학년은 “북한의 실상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며, 민주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5학년은 “남북분단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며,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6학년은 “북한 공산체제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자주 국방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영역에서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학년 ‘바른생활’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 의지를 다지게 한다.”고 되어 있다. 도덕과의 3학년의 내용 영역 중 ‘국가·민족생활’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5학년에서는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6학년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알고 동정심을 가지며,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을 알고 경계하며, 민주주의 우월성을 알며 평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북한공산집단의 문제점을 알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자주 국방 의식을 높이며,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민족으로서의 긍지 및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목표면에서 볼 때, 1980년대까지와 그 이후 1990년대 초까지를 비교해 보면,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이전에 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는 통일교육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통일교육은 조국애와 민족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 및 일체감, 그리고 평화통일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3) 統一教育의 內容

교수요목 시기의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공민과 함께 國家 統一 안보 생활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시 생활 독본이 추가되었다. 제1차 教育課程에서는 처음으로 교과서에 統一 安保 生活, 즉, 공산주의 비판과 국방·안보 내용이 등장하였다. 제2차 教育課程기에는 國防·安保, 공산주의 비판, 또는 북한 현실 비판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제3차 教育課程기에는 共產主義 비판, 국방안보와 북한 현실 비판이 강조되었다.¹⁵⁾

제4차 教育課程 이후의 시기별로 초등학교 도덕과의 統一 教育 관련 내용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제4차 教育課程에서의 統一 教育 내용의 특징을 보면, 비참한 생활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동정, 억압과 통제, 독재정치, 민족문화 말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당의 위협, 간첩과 무장공비의 만행, 전쟁 준비, 잔인성 등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며, 북한동포들도 자유를 바라고 있고 平和統一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초등학교 도덕과 統一 教育 내용의 변천

구분 학년별	제4차 교육과정 (1981. 고시)	제5차 교육과정 (1987. 고시)	제6차 교육과정 (1992. 고시)
1	(1) 북한 어린이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다. (2)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안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고, 동정하기	
2	(1)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동정한다. (2) 간첩과 북한공비들의 만행을 동정한다.	북한 보다 잘 사는 우리의 생활 알기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태도 및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키기

15) 이재봉(1991), "한국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연구,"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 152-154.

구분 학년별	제4차 교육과정 (1981. 고시)	제5차 교육과정 (1987. 고시)	제6차 교육과정 (1992. 고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다. (2) 북한 공산당의 무력도발을 경계한다. (3)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 (2)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3) 6·25 남침과 그 이후의 도발 사례 	<p>다른 사람 의견 존중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 주민들은 억압과 통제 속에 살고 있음을 안다. (2) 북한 공산당의 전쟁 준비를 경계한다. (3) 남북 분단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의 생활과 북한 주민의 생활 (2)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 (3)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 	<p>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 공산당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음을 안다. (2)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을 알고 경계한다. (3)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바라고 있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 분단의 아픔 (2)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들의 생활 (3) 평화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 	<p>평화 통일의 방법</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산주의는 모순된 제도를 안다. (2) 북한 공산당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있음을 안다. (3)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체제의 문제점 (2) 자주국방의 자세 (3)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p>평화를 위한 노력</p>

제5차 敎育課程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남북 분단의 아픔, 우리 생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비교, 우리 나라의 안보, 平和的인 統一과 武力에 의한 統一, 自主國防의 자세, 평화통일을 위한 자세들을 강조하고 있다.

제6차 教育課程에서는 북한 현실 인식과 統一의 필요성, 統一에 대한 염원, 統一 조국의 미래 모습, 統一의 방법, 統一을 위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

教育課程상에서 統一教育 내용상의 차이를 보면, 제4차 教育課程 시기(1980년대)까지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고 경계하며, 북한 주민들의 비참하고 억압된 생활에 대한 동정심 및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주로 강조되었다. 제5차 教育課程시기(1989-1994)에는 남북한의 주민생활 비교를 통하여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주고,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자세를 강조하며, 특히 3학년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4차 教育課程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6차 教育課程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教育내용으로서 統一教育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2. 獨逸의 教育統合과 示唆點

1) 통독 이전의 政治教育

獨逸의 市民教育은 政治教育이라는 명칭하에 실시되었다. 그들의 政治教育은 과거와 같은 주입식의 반복을 통한 습관이나 적응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객관적인 사실인식의 기초 위에서 政治나 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政治教育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가치관과 세계관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특수한 인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을 보장해 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독의 중요한 政治教育은 분단의 현실 인식과 統一에 대한 역사성을 토론하고 教育시키는 것이었다. 한반도와 같은 동족간의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대립하는 사상과 주장을 펴면서 적대하는 두 블록에 속해 있는 두 현실 속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가능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 동방정책이었다. 그들은 분단이란 엄청난 현실의 인식을 위하여 동독과 서독의 형성에 관하여 논하고, 특히 양국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내독관계(Innere Deutsche Beziehung)'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

16) 김항원, 강근형(199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pp.107-117.

은 그들이 1970년대나 1980년의 여러 政治教育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이러한 教育의 방향은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獨逸 現代史와 분단 후의 동·서독 및 그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및 추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동·서독 두 나라의 공통성과 동일성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성과 동일성을 계속·유지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¹⁷⁾

여기서 동·서독의 政治教育의 차이점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政治教育은 동독을 비방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다. 동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상호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독의 政治教育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教育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동독이 政治教育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추구하였던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란 극단적인 政治教育을 하였기 때문에 통독 이후 동독의 청소년들이 급격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獨逸의 教育統合 과정 및 현황

獨逸의 教育統合 전개방식은 주요시점과 단계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⁸⁾

주요 시점은 70년대 초반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1990년의 統 一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을 기준으로 분단 이후부터 기본조약 체결까지의 단계, 기본조약 체결 후부터 統 一조약 체결까지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각 단계 별로 추진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教育統合 정책이 教育體制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양측의 국민의식의 재형성을 포함한 구조,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활동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獨逸 教育統合 政策의 가장 선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은 동독에 대한 연구 분위기의 조성과 활성화, 자료보급활동이다. 이같은 정책은 이미 60년대에 동방지역 담당지부라는 법정기구로서의 자료센터를 설치하고 政治教育體制를 확대, 정비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獨逸의 教育統合政策의 전개에서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 獨逸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도를 형성한 政治教育이다. 政治教育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실시되었으며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독 정부는 政治教育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17) 권오정 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pp. 219-222.

18) 한국교육개발원(1993),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345-346.

국제관계, 獨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장기간에 실시해 왔다. 그리고 그 같은 教育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成人教育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이같은 教育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정책은 동독 및 관련국들과 명문조약, 협정을 계속적으로 체결하여 정세 변화에도 이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같은 조약, 협정 속에 教育, 과학, 학술에 관한 사항도 타결되어 온 것이다. 동·서독 관계에서는 40여년 간을 축적되어 온 양측의 조약, 협정, 합의서 등에 압축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 양측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양독 관계에 관한 한 이를 규제하는 법질서는 거의 이같은 조약과 협정 속에 담겨 있다. 조약, 협정은 대부분 양측 의회의 비준을 받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었다.

統一 후에는 教育體制 내의 각 부분별로 질서 정연한 統合이 진행되고 있다. 질서 정연하다는 표현의 의미는 각 현안 과제의 우선 순위와 중요성이 세밀히 검토되고 각 과제를 분담할 기관과 단체들이 결정되며 통합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의 결정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리며 무엇보다도 특정 부문과 특정 과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무리하게 개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현안 과제는 대부분이 統一 후에도 연방-주 사이, 서독 대표와 동독 대표 사이, 그리고 의회에서의 협정과 입법 문제로 귀결되어 점진적인 타결 과정을 거쳐 질서를 정립하고 있다.

3) 獨逸 教育統合의 示唆點

獨逸의 教育統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피기 전에 동서독과 남북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동서독과 남북한은 공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되었고,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하에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상호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나, 동독은 오랜 동안 인적·물적 교류의 증진으로 民族同質性을 유지하였다. 둘째로 동서독간에는 체제 경쟁에서 서독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남북한간에는 체제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吸收統 ·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페레스트로이카의 동구 확산과 이에 따른 동독 국민의 무혈 혁명이 동독 정부를 붕괴시키고 獨逸統一을 급진시켰는데, 북한에서는 밑으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서독은 동독내의 베를린이라는 교류의 접점이 있었는데, 남북한간에는 그런 교류의 접점이 없다. 다섯째, 동독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독에 비하여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은 호네커 정부 이후부터 통독을 포기하고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해 왔으나, 북한은 무력에서의 우세를 가지고 아직도 적화 統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분단이 평화적 극복 사례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체제경쟁에서의 승리 등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獨逸 教育統合 政策의 '전개방식'은 우리의 教育統合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치, 북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비판적인 안목과 넓은 지식을 함양하는 教育活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점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하나하나 현안 사항에 대한 상호 합의를 문서로 합의하여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러한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누적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가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물론 남북한 사이에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개선이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남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남북한간의 이념적 차이와 6·25 전쟁과 관련된 깊은 심리적 장벽 때문에, 상호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증오가 없었던 獨逸의 경우 국내정치에서 이념적·지정학적 장애가 제거되자마자 統一을 위한 희망찬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教育統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잠정협정에 도달하여 건설적이고 타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분단 40여년 간 서독에서 실시해온 政治教育은 현 세대의 獨逸 국민들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政治教育은 그 내용과 교과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치, 환경 등 인간의 삶에 관련된 거의 모든 상황과 문제에 걸친 의식구조 형성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政治教育은 좁은 의미에 政治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독 국민들의 統一에 즈음하여 보여준 태도와 자세는 이같은 政治教育의 성과일 것이다.¹⁹⁾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식 구조는 40여년간의 공산주의 체제하

19)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94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5권, 통일원, pp. 429~433.

에서 받은 教育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치로부터의 도피, 정치 문제의 탈 정치화, 민주주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 마르크스·레닌 사상의 잔류 등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사람의 統一'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처음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정에 북받쳐서 서로 끌어안기도 했지만, 統一 후 서서히 드러나는 현상은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과 생활방법에서 커다란 흠이져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같은 형제자매였던 그들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이제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잘 어울리기에는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즉, 조부 대나 아버지 대에 태어난 같은 형제가 4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보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 식성, 취미, 심리 그리고 성격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분단국가에서 새로 統一될 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獨逸의 統一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教育에서의 핵심적인 것이 民族同質性 回復 教育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3. 統一教育의 問題點

학교 統一教育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統一教育의 목표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統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統一教育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統一教育의 방향과 개념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²⁰⁾ 教育전문가들은 統一教育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統一教育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統一教育이 시대의 조류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教育 외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즉 국민들의 統一觀의 차이가 크다는 점, 정부의 統一정책이 일괄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統一環境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統一教育이 이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20) 문용린 외(1995), "남북통일 대비 教育 준비에 관한 教育전문가의 의견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연구위원회, 1995. 12.

둘째, 統一教育은 주로 도덕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덕과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統一教育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다루는 정도가 미진한 점이다. 다른 교과의 특성상 統一教育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각 교과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統一教育을 관련짓는다면 많은 내용들이 다른 교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과에서 統一教育을 관련지어 지도한다면 統一教育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교과 教育 이외의 教育 활동에도 부분적으로 統一教育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체계적이고 統一教育을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도 차이가 크다. 학교행사인 경우, 6월에 달짓기, 그림 그리기, 말하기 등과 같은 행사도 개최하고 때로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현장 답사, 행진 등의 행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실정이나 주관하는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셋째, 統一教育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업 방법, 統一教育의 분위기, 교원 연수, 교수 학습 자료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統一教育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道德教育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統一教育도 道德教育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도덕 수업의 일반적인 문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연수는 統一教育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연수의 문제로서는 연수의 체계성 미흡, 연수기회 부족, 연수 기관의 미비, 연수 프로그램의 제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교수 학습 자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입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統一教育에 관한 시사 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들이 풍부하게 개발 보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教育 자료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부자의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언어 생활에서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래어의 이상한 표기법 등 우리와 의미가 다른 용어들만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타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말 표기가 가능한 용어들마저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몰 주체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언어에 관한 한 오히려 훨씬 주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부정적 측면만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사진자료들의 오래되고 낡은 모습만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을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점, 북한의 사회제도나 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統一教育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 부추기는 것이다.²¹⁾

다섯째,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統一教育은 장차 이루어질 統一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될 민주시민의 육성 내지는 남북대화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統一꾼의 배양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²²⁾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統一教育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統一政策, 안보 문제, 북한의 실상 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는 새 정부의 統一정책과 업적이 장황하게 기술되고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統一祖國建設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때, 지금까지의 統一教育은 공산주의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시민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統一教育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回復하여 統一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으며, 民族和合과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統一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統一教育은 편협한 냉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폐쇄적이고도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統一教育의 제도화 과정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21) 추병완(1992),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새교육』, 6월호, pp. 176-177.

22) 최인화(1991),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통일문제 연구』 3권, pp. 176-177.

○ 統一教育은 각급 학교에서 독립된 교과로 취급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도덕과의 일부로 취급해 오면서 그 교과의 지식체계와 통합체계화된 적이 없이, 극히 적은 분량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 왔다.

○ 각급 학교의 모든 教育課程은 학문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각 교과 내용을 연구하는 전문 학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구와 教育, 그리고 교사 양성과정 등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타고과와의 教育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統一教育의 制度化 水準은 크게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 統一教育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安保教育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한동안 「統一·安保 教育」이라는 명칭으로 그 양면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정부주도로 실시해 온 統一教育은 「政權安保教育」으로 오인하여 때때로 정치 쟁점화 하여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 풍토는 統一教育 제도화의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統一教育과 관련된 연구와 教育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는 학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였다.²³⁾

마지막으로 統一教育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총괄적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統一教育은 統一院, 教育部, 그리고 관련부처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있으며, 각종 교원 연수기관이 부분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統一教育의 체계, 즉 教育 目標, 內容, 方法,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23) 박용현(199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4. 12. 13., 통일원, p. 11.

IV. 統一教育의 새로운 摸索

1. 統一教育의 方向

이제 統一教育의 方向은 變해야 한다. 그 동안 統一教育은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광복 이후 정부에서 시행해 온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教育도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防共教育, 反共教育, 滅共教育, 勝共教育, 安保教育, 理念教育, 統一安保教育 등이 그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國民精神 教育이라는 명칭하에 대북 및 反共產主義 教育이 그 일부로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統一環境의 變化에 따라 統一教育의 變化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統一教育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統一 이전에 국가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教育, 남북한이 제시한 統一方案의 정통성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왔지만, 統一時代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부터는 그 초점이 統一 방법, 統一對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統一後 남북한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질화 작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의 統一教育은 '統一對備教育'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영수의 논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²⁴⁾

즉, 統一教育이란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을 하루 속히 극복하여 民族 同質性을 回復하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統一國家를 준비하고 형성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 態度, 價値觀, 思考와 論議能力 및 行爲規範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하게 하는 教育이라 할 수 있다.

이런 統一教育은 남과 북이 서로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教育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연이은 공산권의 붕괴, 獨逸의 統一, 세계적인 경제 불복화현상, 북한의 경제 위기, 동북아의 군비경쟁 등에서 보이는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우리의 統一문제를 보다 서두르지 않

24) 김영수(1995), "동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p. 195~211.

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미리 統一을 내다보고 이를 준비하는 教育, 더 나아가서 統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教育의 기초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統一의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심어주는 일이다. 북한의 주민과 영토를 한국의 통치권 아래로 통합함으로써보다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고, 좀더 좋은 조건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단순한 공리적인 발상에서 統一의 당위를 논하는 것도 물론 統一의 목적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남쪽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나누어 갖게 하자는 이타적 동포애에서 統一의 당위가 시작됨을 인식시키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남이 아닌 동포라는 인식, 그리고 동포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統一問題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임을 강조해야 한다.²⁵⁾

둘째는 統一 후의 체제문제로서, 우리 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教育할 필요가 있다. 한쪽이 자신의 체제를 고집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체제를 고집하기 마련이다. 이는 오히려 統一을 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서로를 포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教育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統一韓國의 體制와 理念模型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단점을 보완한 민주사회주의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나 북한식의 사회주의 심지어는 사회주의적 다원주의도 우리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²⁶⁾

셋째, 統一韓國의 國家形態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분명히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 단일체제이다. 현실에 있어서 統一의 중간단계와 최종단계의 구별은 애매하지만 갈등구조가 있는 이질적인 체제가 일국가 속에 공존하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형태는 분명히 1國歌 1體制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연방형태의 統一중간단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統一過程에서는 그

25) 상계논문, p. 198.

26) 이에 대해서는 김동성,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모형과 국민 정치의식경향," 『한국과 국제정치』, 94년 봄·여름(경남대국통문제연구소)을 참조.

중간단계로서 연방제든 국가연합의 형태든 과도기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國家 1體制로의 統一인 것이다.²⁷⁾

넷째, 統一이 과거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작업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현재도 여전히 과거의 향수를 간직한 채 統一을 생각하는 세대가 있으며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후대에 전하려 하고 있다. 북쪽에 남겨두고 온 토지문서를 고이 간직하면서 統一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教育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신들이 북쪽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면 할수록 統一의 길은 멀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教育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모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북녘땅 토지문서 자진포기하기 운동’ 등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다섯째, 지나치게 부정적인 統一費用만을 생각하는 경제주의적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教育해야 한다. 獨逸의 統一에서 보이듯이 경제적 격차가 심한 두 체제가 統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統一問題가 統一費用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분단을 영구화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統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비용절감의 측면을 더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함으로써 야기되는 각종 적대행위, 상호비방, 막대한 군사비지출 등의 비용이 統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당부분을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統一後의 獨逸이 그 後遺症으로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獨逸 統一이 가져온 부정적인 면도 계속적인 연쇄효과로 인해 급속도로 回復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단순한 비용위주의 사고만으로 統一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부족함을

27) 통일을 위한 중간형태론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1994), 『한반도 통일의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심도있게 분석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흥기, 「통일논의의 현황과 과제」

황성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간형태론 연구」

백종천, 「한반도 군사구조와 통일의 중간형태」

변진홍, 「한반도 통일의 중간형태론」

알 수 있다.²⁸⁾

한편 여섯째, 統一은 世界史的 흐름에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이 붕괴함에 따라 과거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북한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던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수교하는 상황이다. 세계가 단일 자본주의시장으로 재편되고 그에 따라 그 동안 안보장벽에 막혀 불가피하게 지원만 하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독재정권이라고 지탄받는 정권일지라도 무조건 지원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각종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타국내의 문제에까지 노골적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국제환경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은 자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공동번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체제로 統一을 이루어야 함을 教育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統一의 방법 및 주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성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당위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統一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統一이 되는 것만도 아니다. 국제적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獨逸의 統一도 결국은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이 용인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세계 최강 4개국(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관계 및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統一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다.²⁹⁾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후유증 극복 방안 연구』를 참조.

29) 이점과 관련해서는 강광식 외(1989),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2. 統一教育의 基本 内容

東西獨 統一 以後 國民들의 統一 意識이 변하고 統一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함으로써 統一에 대한 관심이 실천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統一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시키며, '영토의 統一'뿐만 아니라 '사람의 統一'이 統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요컨대, 統一教育의 基本 内容은 민족간의 화합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統一'인 진정한 統一을 이룰 수 있는 데 두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獨逸 統一 이후 다양한 統一 方案이 한반도 統一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統一 방식과 절차 속에서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의 統一'이란 統一의 본질적 의미이다. 왜냐하면 統一의 핵심가치는 단순한 '영토의 統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統一'에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統一'이란 이제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단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뒤섞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統一이 된다는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統一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다.

民族統一의 유일한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화체제와 사고방식에서 살아 온 사람들은 하나의 진정한 민족으로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요컨대, 民族統一은 두 개의 다른 정치문화 속에서 살면서 분단되어 왔던 민족을 하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가진 정치적인 민족으로 재구성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정치적 민족으로서의 재구성이란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식을 정착시키는 작업으로 '보다 큰 전체' 즉 '우리'에 대한 '나'의 의식적인 긍정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정치적 소속감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있게 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의식적인 구성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며, 시민인 것이다.³⁰⁾

30) 권세기(1993), "통일교육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pp. 91-111.

그런데 국민과 시민이 요체가 되는 정치적 소속감인 政治意識의 教育을 통하지 않고서는 형성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진정한 내적 統合도 教育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統一教育'이란 개념에는 領土統一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남한의 教育과 領土統一 이후 남북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教育 모두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統一教育'은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統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教育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統一教育'은 '統一對備教育' 또는 '統一準備教育' '統一以後教育'을 포괄하는 차원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統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統一教育이 필요한가? 統一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統一教育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民族和合 教育'이다. 남북한간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統一教育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부딪치게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극적인 환희를 동반한 영토통일 이후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난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남북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 및 지역갈등으로 사회 갈등 구조의 중층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간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남북한 주민들간 심리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북한내의 사회주의적 이념의 붕괴와 남한내의 反共 이데올로기의 쇠퇴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며, 북한지역이 심각한 경제위기로 북한주민이 대거 남하함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 노동 임금저하 및 노동시장 교란, 물가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나 남한 주민들의 실질생활 수준저하 및 사회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³¹⁾

이와 같이 영토통일로 인한 형식적인 통일한국의 성취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난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최대 과제는 이질화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의 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民族和合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남북한 주민들간 누적되어왔던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31) 정영국(1994), "'땅의 통일'에서 '사람의 통일'로," 공성진외, 『미리 가본 통일 한국』, 동화출판사, pp.150-157.

영토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적대감은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리라 생각된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현실생활에 상당수준 순조롭게 충족된다면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이질성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호 적대감 해소는 남북한 주민들 쌍방의 문제이나, 남한 주도의 통일일 경우 그 심화 또는 해소의 주도권은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쌍방의 적대의식은 우선적으로 남한주민들이 영토 통일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남한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과중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대량 남하로 남한 주민들의 생활이 악화될 경우,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차별의식 및 차별대우가 심화될 경우 상호 적대감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 단계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상호 적대감이 해소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실시하며, 북한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고용창출 및 생계지원 대책 등이 적기에 실행되면 북한주민들의 대량 남하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생계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한국정부 및 통일한국에 대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체계로 教育시키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른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가치체계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 統 一教育은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시키는 데 비중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시장경제 및 민주정치를 중심으로 學校教育의 내용이 개편되어야 하고, 북한 지역에 단계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 및 영리추구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 再教育이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주의의 장점과 개인주의의 장점을 융합 강조하는 民主政治 教育이 각종 정부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³²⁾

이러한 처방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와 시장 경제에 대한 教育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이

32) 상계서, pp. 160-166.

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들을 도입,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統·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教育 내용과 교재개발 및 教育者들의 양성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통일은 教育에 의해서 촉진되며 가장 마지막에 가서도 教育에 의해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 두 체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教育제도 하에서 살아왔다. 그 결과 빚줄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 강한 '우리 의식' 또는 '민족 의식'에 기초한 民族共同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同質性을 回復할 수 있는 민족통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통일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同質性 回復이란 남북한 주민 사이에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사회와 문화의 통합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무력으로 강점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民族共同體의 단일성 回復이 민족 통일이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정향 등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은 남북한 주민이 공통된 문화를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단 이전의 공통문화적 요소를 정치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 북한 사회에서 살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 생활문화, 가치정향 등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教育을 실시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통일된 사회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있다.³³⁾ 문화는 접촉과 교류 속에 이입된다. 따라서 문화 동질화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남북한 사회간의 문화접촉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제3국에서의 회의,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접촉을 시

33) 윤덕희 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 사회 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pp. 124-156.

도해야 한다. 언어의 재통일, 전통문화의 재확인, 그리고 새 시대의 생활 방식의 균일화 등을 부단히 추진해야 된다.

통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화 작업도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獨逸의 경우 텔레비전에 의한 40년간의 문화통합 노력으로 큰 무리없이 통독에 성공했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사회 문화 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³⁴⁾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선행과제로 우리의 문화전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펴나가야 한다.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군사·외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군사적 능력 유지, 외교적 노력 등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통합단계에 들어서면 전혀 기여 못하는 노력들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회를 현재의 분단상태로 방치하면 궁극에 가서는 두 개의 독립된 공동체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려면 의식적 노력으로 사회 문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 문화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형태에 대한 의식에서도 서로 접근하게 되어 정치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지리적인 통일만으로 民族共同體 형성의 토양이 되는 사회 문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回復은 단지 민족의 내적 통합을 위한 외적 필요조건이지 자동적으로 사회 내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전선의 철조망만 제거된다고 민족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 언어와 역사적인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적인 민족 이해가 통일의 當爲性을 제공하지만, '통일한국'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함께 시작한 상이한 정치체제는 사회 문화적인 이질감의 심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간격은 분단 이전의 역사적 전통과 혈연적 공통분모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回復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이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民族共同體를 필요로 한다. 북한에 '주민은 있어도 시민은 없다.'라는 말처럼 통일한국 구성원의 절반은 시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일한국의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사회 문화통합이며, 진정한 民族和合인 것이다.

34) 상계서, pp. 124-156.

사회 문화 통합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 문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統一教育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야한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간에 교류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豫想教育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은 무엇인가 등이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들을 가질 수 있도록 統一教育의 방향이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獨逸 예멘, 베트남의 통일 이후 전개되는 사회통합 실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³⁵⁾

3. 統一教育의 實行 方案

教育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教育의 방향 (教育목표 또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고 이 설정된 방향에 맞도록 教育내용이 구성되고 (내용의 적절성) 이것을 가르칠 교사의 신념과 확신(교사의 신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중에 내용의 객관성은 합리적 統一教育 실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또, 統一教育은 아동의 심리학적 발달단계에 알맞아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온 이념지향의 教育에서 벗어나 발달 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남북한의 지리적 역사적 사실만을 비교해주고, 이념적 가치판단을 教育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피아젯(Piaget)의 발달심리학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의 부여를 통해 그들이 구체적 조작적 사고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토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 등 교수학습 매개물이 주어진 상태에서 탐구학습전략을 채택하여,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과 지적 호기심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통일의지와 역량을 스스로 배양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내용 구성

정세구는 統一教育의 내용으로³⁶⁾

35) 김영수(1996),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 한국정치학회 '96 하계학술대회(1996. 6. 27-29) 발표논문.

36) 정세구(1994), "건강한 통일관의 교육좌담," 『교육월보』, 9월호, pp. 24~25.

- ①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 ② 북한의 현실
- ③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노력과 문제점
- ④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국가의 실현 방안
- ⑤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장애 요인
- ⑥ 민족 통일의 조건과 통일의 전망
- ⑦ 자유 민주주의 구현 노력
- ⑧ 통일을 위한 실천적 사례(사랑의 쌀 보내기, 통일 기금 마련)을 들었고
손정우는 統一教育의 내용으로³⁷⁾

- ① 분단의 원인
- ② 통일의 當爲性
- ③ 통일의 주체
- ④ 북한관 내 영역을 들었으며
한명희는³⁸⁾

- 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② 民族共同體 형성
 - ③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들었다.
- 본인은 統一教育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남북 분단의 이해

- ① 분단의 원인과 배경
- ② 국제정세와 주변정세의 변화
- ③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의 조건

(2) 통일의지의 함양

- ① 통일의 주체와 통일의 當爲性
- ② 민족 공동체 형성과 통일문화 조성
- ③ 민주시민의 자질 배양
- ④ 통일의지의 실천적 과제

37) 손정우(1990), "국민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비판적 분석," 『교육비평 창간호』, 푸른나무, p. 272.

38) 한명희(1992),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3월호, pp. 37~39.

(3) 올바른 북한관의 확립

- ①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
 - ②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③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비교
 - ④ 남북교류와 이질성 극복(民族同質性 回復)
- (4) 통일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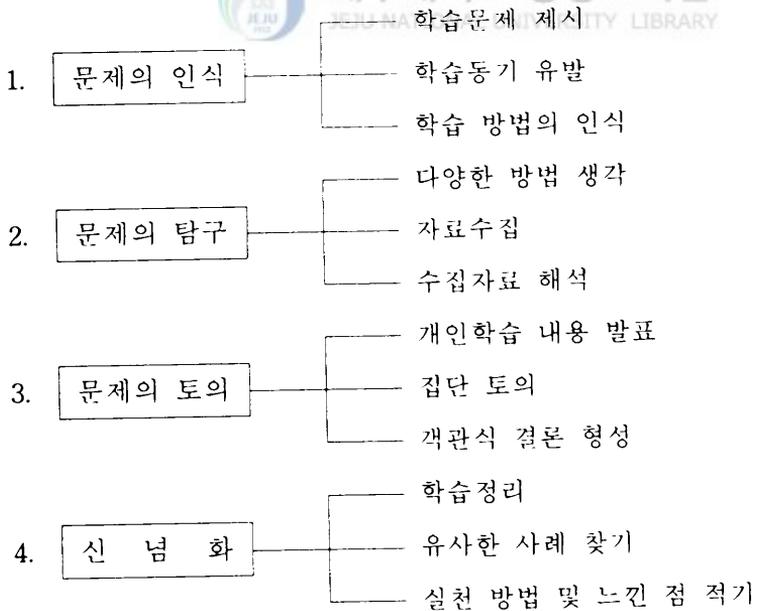
- ①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 ② 공산주의 전략과 그 허구성 파악
- ③ 자주국방 태세 완비

2) 統一教育의 模型

(1) 統一·安保教育의 모형

박종태는 統一·安保教育의 수업모형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³⁹⁾

<표 2> 통일·안보 教育의 수업 모형



39) 박종태(1992), "통일안보교육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P. 45.

① 문제의 인식 단계에서 統一教育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② 문제의 탐구란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습과제를 제시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추구하도록 지도한다.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고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지도한다.

③ 문제의 토의

학습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단계이다. 집단적 토의를 통해 다른 학생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오류나 증거, 입장들을 들을 수 있으며, 똑 같은 문제점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증거 사용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의를 통하여 각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는가와 그 판단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료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④ 신념화의 방법으로는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실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실천 동기는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내용을 기록하고 발표하거나 학습내용에서 느낀점을 기록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2) 統一教育의 모형⁴⁰⁾

문용린은 統一教育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이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統一教育의 환경조성 차원이다. 이 부분은 統一教育의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즉 국내의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국론을 통일하여야 강력한 統一教育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변화추세를 주시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로 파악한 후에야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통일에 관한 정치권 (여, 야 또는 국회에서)의 합의 형성되고

둘째, 국가는 教育 내적 갈등관리 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統一教育을 행하는 일부교사들이 교육부 당국자에 의하여 “의식화” 교육자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고, 統一教育의 방향감을 잡게 된다.

셋째, 統一教育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의 최대 허용치를 분명히 설정해야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소극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넷째, 국가의 통일정책 남북교류일정과 원칙 등에 있어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일관

40) 문용린(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정책 자문회의,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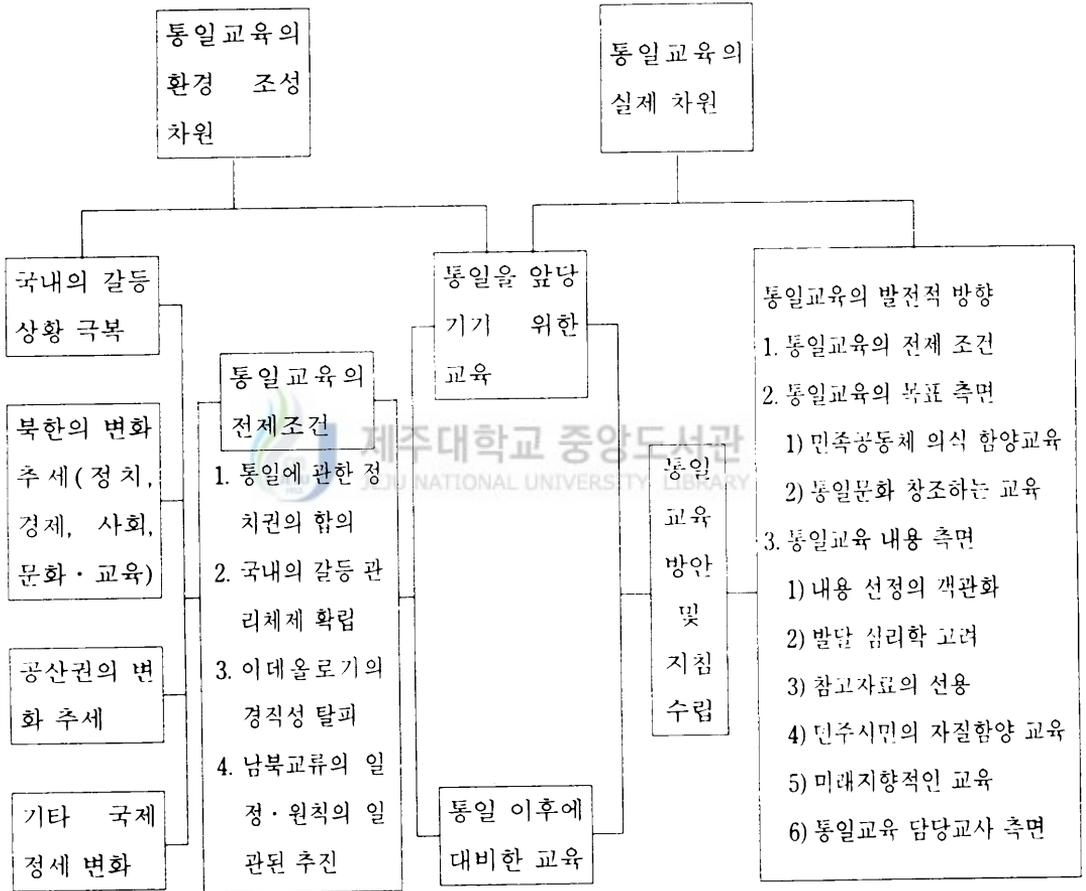
성이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교사의 신념이 확고해진다.

이와 같은 統一教育의 환경조성의 전제 위에서 두 번째 차원인 統一教育의 실재가 전개된다. 統一教育의 실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개념화된다.

첫째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教育이고

둘째는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教育이다.

〈표 3〉 統一教育의 모델



3) 統一教育 指導方法

(1) 統一教育의 凡教科的 指導

학교에서는 전 교과 활동을 비롯하여 클럽활동, 특별활동, 행사,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모든 教育 活動이 연간 지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있는 S초등학교의 학교경영계획을 보면 교과운영 운영 계획, 특별활동 운영 계획, 학교 행사 운영 계획 의

에 업무별 추진 계획에 독서지도, 環境教育, 저축, 생활지도, 人性教育, 진로지도, 科學教育, 體育教育, 學校放送 등 20 가지가 되고 각 업무별로는 목표, 방침, 연간지도 계획을 세워서 학교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統一教育은 그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될 뿐 대부분이 학교에서 도덕교과 영역의 일부로만 취급해서 연간 지도계획에 의한 지도가 안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학교도 비슷한 실정이다. 물론 統一教育은 도덕교과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해야지만 그외 시간에도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訓話, 行事, 時事 揭示教育, 特別活動 등 全 教育活動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統一教育 계획이 학교경영계획에 수립되어야 하겠다. 학교에서 統一教育을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은, 북한을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내용보다는 동포애적인 시각으로 '함께 살이야 할 형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나 民族同質性을 回復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지도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사는 것을 당연히 해야할 도리로 생각하고 불평을 하지 않으나, 남한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큰 아들한테는 시집도 안갈려 하고, 관광을 시켜준다고 멀리 관광지에 가서 그냥 버려두고 오는 현대식 고려장이 생겨나는 것을 비교할 때, 북한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외에도 가족성원간의 정감적 유대관계, 조상숭배사상, 명절, 친족간의 교류 등 전통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지도해야 겠다.

〈표 4〉 연간 지도계획

월	주 제	지 도 내 용	관 련 행 사	실 행 영 역			비 고 (과제, 행사, 자료)
				교과	특활	행사	
3	삼천리 금수강산	남북분단의 원인		○	○		○북한이나 통일관련 내용 스크랩하기
4	이산 가족의 슬픔	남북 분단의 고통			○		○주위에 있는 이산가 족 조사하기
5	한 나라, 한 겨레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 의 조건		○	○		○북한 어린이에게 편 지쓰기
6	6·25의 비극	6·25의 원인, 과정, 결과	현충일 6·25	○		○	○VTR 자료 및 피해상 황 통계자료 ○민족화합 백일장
7	함께 사는 통일	통일의 당위성		○	○		○스크랩북 전시하기 (우수 아동 표창)
8	우리의 소원	왜 통일을 해야하나? 주장하는 글 쓰기					○여름방학 과제
9	우리 민족의 명절	북한의 명절과 우리의 명절 공통점	추석	○	○		○북한 명절 화보나 VTR 자료
10	우리 말, 우리 글	북한에서 많이 쓰는 일 상용어 알기	한글날		○	○	○북한 사투리 사용한 나의 주장 발표
11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생활 가족 관계			○	○	○민족화합 토론 대회
12	조국통일을 위해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글짓기		○	○		○통일 관련 문집 만들 기 계획 세우기
1	통일된 조국의 모 습	통일된 조국의 미래의 모습을 글로 써 보기					○겨울방학 과제로 제 시
2	서로 아끼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약점도 있으나 우리 민 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인식 시킴)	설날	○	○		○통일문집 제작

(2)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학교 행사 및 환경구성

① 행사면

統一教育과 관련된 행사가 6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현충일과 6·25를 관련시켜 지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統一教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월별로 분산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행사의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 反共웅변대회, 호국 안보 글짓기, 호국 보훈 백일장 등은 명칭부터가 북한을 대결이나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대회 명칭도 民族同質性 回復 위한 教育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民族和合 웅변대회, 民族和合 글짓기, 民族和合 백일장 등으로 부르고, 주제도 民族和合을 이루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② 환경 구성면

정부가 강력히 反共教育을 추진할 때는 학교마다 反共館이 있고 교실에는 反共코너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統一教育에 관심이 소홀해지면서 통일관련 '관'이나 '코너'가 없어지거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통일환경 변화에 알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들이 많다. 이제는 명칭도 '民族和合館' '民族和合코너' 등으로 바꾸고 民族同質性 回復이나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사성에 알맞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3) 統一教育 내용의 보완 지도

현행 教育課程에 따라 도덕과에서 統一教育을 실시할 때 교과서의 관련단원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다음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에 유의, 교재를 재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표 5〉 초등학교 도덕과 보완 내용

학년	현행 교육과정	주요 보완 사항
3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 ②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③ 6·25 남침과 그 이후의 도발 사례	○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자랑 • 화합의 길 ○ 분단의 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와 6·25
4	① 우리의 생활과 북한 주민의 생활 ②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 ③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	○ 양체제 비교 및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체제의 차이 • 북한의 현실 ○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의미
5	① 남북 분단의 이유 ②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들의 생활 ③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	○ 남북한 통일 노력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입장 차이 • 우리의 통일 노력 ○ 통일 여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 • 남북관계의 변화 ○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 • 통일 논의에 대한 합법적 태도
6	①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체제의 문제점 ② 자주국방의 자세 ③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	○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조국의 모습과 조건 ○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한 노력

(4) 수업지도 방법

(가) 탐구식 수업방법

통일원에서 제시하고있는 統一教育 지도시 유의사항은 먼저 교수자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감정적 적대 의식의 표현을 자제하고, 이론적 모순이나 현실과의 괴리점에 근거하여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教育者는 被教育者들에게 지식과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被教育者의 스스로의 判斷能力을 자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분석, 종합,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교수자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결론이나 해석을 그대로 전과 주입시키려 주력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대안적인 관점들을 적절히 직시해 주는 탐구식 수업이 요망된다.⁴²⁾

教授者는 統一問題에 대하여 教育者들의 興味와 關心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探究와 問題解決 能力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교류 협력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한이 개방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자료에 입각하여 教育을 진행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단순한 政策的 지식의 提供만으로는 統一教育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 방법이 집단탐구 수업 모형이다. 이 방법의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被教育者의 支持, 反對, 또는 問題點을 기탄없이 제기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해당문제와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 자료를 학생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① 한명희, 전개논문, p. 39.

②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p. 14.

42) ①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pp. 42~48.

〈표 6〉 집단 탐구 수업모형 준거안

단 계	활 동 내 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상황제시 및 탐구문제 설정	○ 동기 유발 ○ 학습문제 제시 ○ 탐구문제 선정	○ 문제나 자료를 제시하고 시청하거나 발표한다. ○ 이번 시간에 학습할 문제는 무엇인가? ○ 중요한 질문 또는 가설을 설정한다. ○ 탐구할 문제를 판서해 주고 찾아 보게 한다.	○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선정한다. ○ 어린이들에게 탐구할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 탐구의 계획	○ 분단 편성	○ 탐구 내용별 좌석을 배정한다. ○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분단에 가서 같이 앉는다. ○ 탐구내용을 세분화 시킨다. ○ 누가 어떤 내용을 탐구할 것인지 분단별로 협의하게 한다. •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 정보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의 결정에 주안점을 주도록 한다.
○ 탐구의 실시	○ 탐구계획 발표	○ 탐구 계획의 내용을 분단별로 발표한다. ○ 계획에 의하여 탐구조사를 한다.	
○ 탐구 결과 발표	○ 탐구 내용 발표 토의	○ 분단별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토의해 본다. • 반대 의견도 발표해 본다. ○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본다.	○ 탐구 방법과 탐구 내용을 곁들여 발표해도 좋다. ○ 개별 질문을 통하여 요점을 정리해 나간다.
○ 탐구에 대한 평가	○ 문제점 ○ 다짐 실천계획	○ 탐구 과정 중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본다. ○ 자기의 생활을 반성해 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말해 본다.	○ 탐구의 장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토의하도록 한다.

(나) 토의법

토의법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집단사고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나 결론은 도출케 하는 탐구식 방법의 제일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감정을 표출시키고, 견해를 명료하게 하며, 사람들의 의견을 재평가하고, 수용과 소속의 감정을 습득케 한다.

토의법은 민주주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 발전과 함께 집단 속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한 두 사람의 의사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대화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이 기법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학습자 중심의 토의법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교수 기법이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고, 또 이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토의를 이끌어 가는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강의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교과내용을 가르치는데 불필요, 부적절하며, 시간을 너무낭비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統一教育에서 활용되는 토의법은 국민계도 활동에서 그 기대하는 성과가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등 정의적 변화를 기대할 경우와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의 기능 등, 지적 능력의 신장이 특히 강조될 때 이 교수법이 특히 필요하게 된다.

① 계획 및 진단단계 토의의 주제에 대한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준비태세를 취하고 토의할 조항의 윤곽을 작성한다, 토의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생각하여야 하고 토의의 방법도 정하여 놓는다.

② 지도단계

㉠ 도입의 과정

교수자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동기와 관심을 일깨운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실감있게 인식케 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건이나 정보 등 주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좋다.

㉡ 전개 과정

토의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주제 숙달 토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벌리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 토의의 경우에는 토의 중 조사되어야 할 가설을 설정하게 하고 연역적 탐색을 거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사실을 토의하게 한다.

㉔ 정리의 과정

교수자 주도의 토의의 경우에는 토의된 바를 요약하고, 토의의 결과로서 결론지어질 수 있는 것과 추가된 증거자료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한다.

토의과정에서 유의할 점은⁴³⁾

㉕ 지도내용상의 차원에서 보면, 토의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법이나 특수 사실을 종합한 일반화된 법칙 그리고 태도나 가치관이다.

㉖ 절차상의 차원에서 보면, 토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토의자의 탐구를 위한 중개 역할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㉗ 환경상의 차원에서 보면, 강의식 기법을 활용할 때는 교수자가 일정한 자리에서 권위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토의 식에서는 교수자가 자유로운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학습자들도 교수자에게 일제히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자유롭게 마주 앉아 토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

㉘ 발전 및 평가 단계

토의의 과정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함으로 토의의 결과가 어떤 결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보다는 토의에 참여하는 능력이나 기능의 습득정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듣는 법, 발표하는 법,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 거짓이나 감정적 표현을 구별하는 법,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법 등을 포함한다.

(다) 民族同質性回復을 위한 수업 모형⁴⁴⁾

民族同質性 回復에서 교육이 담당할 역할은 인간의 특성변화와 관련된 요소이다. 이 역할은 장기성을 띠며, 또 강제성이 아닌 각 개인의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民族同質性 回復노력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를 전제로 할 때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교육적 전략은 대략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 선택 모형으로서 동질화의 방향을 기성세대(혹은 국가)가 미리 정하고, 이를 젊은 세대 또는 일반 국민에게 수용하도록 일사불란한 교육을 중앙 집중식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 선택 모형으로서, 동질화의 내용과 방향을 미

43) 정세구(1984), "통일안보교육 교수기법," 『국토통일안보교육』, 13집, pp. 42~48.

44) 양호민외(1994),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pp. 360~362.

리 정하지 않고 이질적 요소를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기호와 자의적 선택에 맡겨 버리는 교육을 뜻한다. 셋째는 판단력 증진 모형으로서, 이질화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질화의 내용과 방향을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도록 키우자는 교육방안이다.

세 모형 중 세 번째의 판단력 증진 모형이 가장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되는바,

- ① 民族同質性 回復은 궁극적으로 국민 각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는 점
- ② 이질적 요소에 대한 동질화의 방향과 내용설정이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 ③ 기성세대나 국가의 동질화 방향과 방향 결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 ④ 각 개인의 사회 도덕적 판단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고양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同質性 回復을 위해서 판단력 증진 모형을 선택할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실제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력 증진은 불가능하다. 즉, 민족 이질화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을 읽고, 외우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교육은 결코 이질화 극복교육이 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수업 전략이 가능하다. 그 전략이란 구체적 이질화의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중에 이질화의 사례를 관통하는 원리를 습득케 하는 방안이다. 이 수업 방안은

- ① 이질화 사례제시
- ② 문제점 부각인지
- ③ 대안 찾기
- ④ 대안을 비교하기
- ⑤ 하나의 대안 선택하기
- ⑥ 대안을 따라 행동하기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이러한 수업은 이질화 사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업방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각 이질화 사례에 대한 낱낱의 해결책을 외우고 내면화 하는게 아니다. 낱낱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이질화 사례를 다룰 줄 아는 일반 능력을 습득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질화 사례를 다룰 줄 아는 일반 능력은 대체로 네 가지의 내포적 속성을 갖는다. 첫째는 이 일반 능력은 전이가 높은 “지식 구조”의 특징을 갖는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다양한 이질화 사례에 “원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해결한다.

둘째, 이 일반 능력은 이질화 사례에 대한 합리적 논의 태도를 포함한다. 독단과 유아독존적 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

셋째로, 이 일반 능력은 사회적 기능, 사회적 능력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넷째는 이 능력은 초인지의 특색을 갖기도 하는바, 민족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안과 지식을 얻는 절차와 기준 및 윤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의 同質性 回復과 제고를 위한 교육은 작게는 이상의 네 가지 능력을 포섭하는 ‘이질화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하고, 이 능력의 배양과 관련된 교육내용으로서 ‘이질화 방법을 다룰 줄 아는 수업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民族同質性 回復의 제고를 위한 교육은 작게는 남·북한간의 주민 사이의 생활규범과 습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50여년 간 헤어져 산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공동체의 특성으로 동질화하는가 하는 동질화의 방향과 내용은 정작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동질화에 대한 논의 태도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 능력은 결국 나의 주장이 있으면서도,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 줄 알고 양보도 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책을 찾아갈 줄 아는 태도이다.

(라) 개념수업 모형

統一教育 내용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일정책에 관련되어 남북한의 통일 접근 과정에서 체결된 많은 합의서 등에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남·북한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 등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統一教育에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 학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념수업 모형이다. 개념수업 모형의 기본 가정은 학생들은 교과와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학생들이 개념을 분류하고 변별하는 기능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자극, 사건, 경험, 정보 등을 분류하고 변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수업 모형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념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하려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학습해야 할 개념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개념을 학습하는데 혼동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주의 깊게 탐색한다. ③ 학습해야 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확인한다. ④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을 논리적으로 계열화해야 한다. 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개념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구안한다.

개념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단계 : 가르쳐야 할 개념의 선정 및 심사

① 개념의 정치 - 선정된 개념들 간의 종속관계를 밝혀 상위개념, 하위 개념의 계열성을 세분화

- ② 개념의 선정
- ③ 교사 자신이 가르쳐야 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④ 개념의 곤란도 수준 평가

제2단계

- ① 아동 발달 이론에 기초를 둔 접근
- ② 개별학습 이론에 기초를 둔 접근
- ③ 개념 발달 촉진을 위한 수업전략 개발
- ④ 개념획득을 위한 수업 전략

제3단계 : 적절한 평가절차의 개발과 적용

- ① 학생들이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② 아동들의 개념 숙달 정도 평가

이러한 개념수업 모형을 統一教育에 적용할 때, 우선 분석해야 할 것은 분단, 통일, 한민족 공동체, 남북 연합, 자주, 평화, 민주, 주체 등이다.

(마) 비교 분석 모형

현재 통일에 관한 교육 내용 중에는 남북한의 각종 분야와 요소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이러한 비교를 통한 남북한의 실상을 분석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비교분석, 남북한 사회체제 비교분석,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상호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민족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먼저 남북한의 사회체제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강약 점을 비교하는 분석에서는 탈코스 파슨스의 사회 체계 모델 (AGLL 모델)을 응용하기도 한다.⁴⁵⁾

민족의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물에서 남북한의 비교분석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남북한 정치이념 및 체제⁴⁶⁾

구 분	남	한	북	한
이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김일성 사상)	
체	다당주의, 국민선거 정권교체		1당 독재, 1인 수령 지배체제	
선	출마와 투표행사의 자유 보장		1인 출마에 가부 표시	
입	독자적 국회 활동 보장		형식적 입법 기관	
사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		제도적인 당·국가의 지도 감독	
행	행정집행 업무관장		입법·사법의 권한까지 행사	
정	창당과 정당 활동 보장		조선노동당의 실질적 유일당	

〈표 8〉 경제제도 및 정책

구 분	남	한	북	한
소유제도	사유 재산 제도		사회적 소유제도	
배분원리	자유 경쟁, 시장 경쟁 원리		계획 경제 체제	
경제정책	성장정책 경공업 우선, 중화학 공업화 국제경쟁협력, 대외 지향적 양적 성장 결과 활용 균형도모		자립적 폐쇄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폐쇄적 자립 경쟁 주민생활의 극단적 희생강요	

〈표 9〉 남북한 사회제도

구 분	남	한	북	한
사	개인의 자유 보장		집단주의에 입각한 통제 사회	
회	사상의 다원성 인정		'주체사상' 유일의 확일주의	
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업적주의		출신성분, 당성으로 계급사회	
특	정보의 공유화		정보관리에 의한 폐쇄 사회	
성	주거 이전의 자유		주거이전은 국가 계획 따름	
주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 인정하지 않음(최근 일부 인정)	
거				
종				
교				

45) 이온죽(1990), "남북한 사회체계 강약점 분석,"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 종합평가』 통일원, pp. 132~133.

46) 양성철(1987), "남북한 비교 한국정치 연구," 『한국정치연구』, 장간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pp. 363~376.

〈표 10〉 남북한 교육 이념

구 분	남	한	북	한
교육이념	개인의 개성, 소질 바탕 창의성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교육목표	건전한 시민양성 개인과 국가사회 발전 도모 개인능력 최대한 발휘 개인의 지덕체 발달, 전인교육		혁명가 양성, (공산주의 새인간) 공산사회 건설, 세계혁명가 양성 부가세습, 체제강화, 대남혁명 주체사상에 투철한 혁명가	

〈표 11〉 남북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구 분	남	한	북	한
내 용	지덕체 조화, 전인교육 지향		공산 혁명 위한 정신 개조	
방 법	민주시민의 기본적 태도 함양 개별주의 다양한 교수이론 주지주의		주체사상에 의한 혁명의식 고취 집단주의 조건반사이론 교육과 노동의 조합	

〈표 12〉 남북한 문화 출판 및 언어

구 분	남	한	북	한
문 화	자율적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인간 개조, 김일성 신격화 문화	
출 판	출판 공연의 자유 보장		출판, 공연, 노동당의 직접통제	
언 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객관적 보도 사실 보도 속보성		철저한 정보 통제 주관적 당성 보도 공산주의 이론 소개 공산주의적 교양의 능동성	

남북한의 체제비교 분석을 통한 統一教育은 남북한만의 이질성만을 강조하여 실제적인 同質性 回復에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체제와 북한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우리 민족의 소모적 대립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47) 이양우(1994), “초등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진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38집.

4) 效率的인 統一教育을 위한 擔當者들의 役割

(1) 統一教育 擔當教師 側面

첫째, 교사는 教育課程 및 교과서상의 지도요소에 대한 지도의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상의 지도 요소별로 그 내용을 지도하되 각각의 지도요소를 일괄하는 원리 또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지도한다. 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해석의 관점만을 예시해 본다.⁴⁸⁾

〈표 13〉 북한에 대한 지도 관점

“북한에 대한 지도관점 예시”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중적 실체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즉, 북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이며, 언젠가는 한 나라로 통일을 이루어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적 체제와 생존 방식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중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형제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 위협자의 측면이 약화되기 마련이고, 위협자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형제적 인식의 소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실 우리는 그간 너무 위협자의 측면을 강조해온 면이 있다. 즉 북한이 이와 같은 두 측면을 그대로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즉 북한에 대한 공평한 기술은 바로 북한이 우리에게 갖는 이중적 의미를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표 14〉 6·25전쟁에 대한 지도 관점

“6·25전쟁에 대한 지도 관점 예시”

6·25전쟁은 분단을 실질적으로 고착시킨 우리 역사 이래의 가장 핵심적 사건이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6·25와 관련해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 ② 두 번 다시 이 한반도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

48) 한국교육개발원(1993), “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교육지도자료, p. 27.

- ③ 어떤 명분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
- ④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처참하고 희생이 큰 전쟁이었다.
- ⑤ 전쟁이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약화시킬 수 없는 위정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자다.

그러나 6·25전쟁을 북한에 대한 적객심 고취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시켜 6·25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쟁 극복의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6·25와 결부된 현충일, 국립묘지 등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상의 두 개념에서 예시해 본 것처럼 대북한, 대 공산주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요소들을 수업 담당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지를 분명히 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두 개념 이외에도 이러한 관점제시가 필요한 개념은 예컨대, “국방·안보”, “통일국가”, “일본·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해석”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관점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자세가 요구된다.

① 統·安보 관련 서적과 정부 또는 연구기관의 자료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부지런히 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관점을 교사 스스로 형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주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이 사회가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바르게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③ 이러한 올바른 관점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그 해설서 및 관계기관(교육부, 교육청, 통일원)의 각종자료와 지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능동적으로 교과서의 정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統·教育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관련 TV 방송을 녹화하고, VTR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적 본질에 맞게 재편집하여 지도하며, 또 통일환경 관련 시사자료(신문, 잡지, 방송) 내용을 파일이나 TP 자료로 제작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통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자료를 제시할 때 유의할 점은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을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국민

들 간에도 상당한 사회적 이탈이 있음을 요즘 탈북사태를 예로 하여 분명하게 지도하며, 북한 TV 영상 자료는 주민에 대한 계도성과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유관기관 측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學校 統一教育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양성 기관에서부터 통일관련 교과목 예컨대 국제관계론, 한국의 통일문제, 북한학, 분단국 통일론 등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

둘째, 현직교사들에 대해서는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통일연수 기회를 보다 확충하여 시행토록 한다.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통일원 후원으로 통일관련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일연구를 촉진하게 하고 統一·教育 시범학교 운영 및 표창 장려금 지급을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교사들에게 統一·教育 학습지도 요령과 기법을 지도 자문하기 위해 통일문제 담당 장학사를 고정배치하고 학교에선 윤리주임 교사를 정식 직급화시켜 교직원 특별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교사들로 하여금 북한 및 통일 관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북한 공산권 자료 열람허용
- 특별 연수의 실시
- 해외시찰 주선(공산권 및 분단에서 통일된 나라)

다섯째, 統一·安保 教育資料의 개발과 수업방법 개선을 주관하는 전문 연구팀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統一·安保 교육과 관련된 ‘교육할 거리’에 대한 해석의 관점과 원리를 개발하고 학교 일선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북한 및 동구권 또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overview가 가능하도록 책이나 VTR 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 〈예〉 -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 獨逸의 통일과정

V. 要約 및 提言

본 연구는 統一의 理想과 當爲 그리고 統一教育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두고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統一對備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인 반세기 동안의 분단상태에서 심화되어 온 ‘民族의 異質化’ 극복을 위한 통일과 民族同質性 回復의 개념을 구분하고 統一의 目標과 當爲性, 그리고 통일의 民族史的 意義를 살펴보았다. 분단 50여년 동안의 統一教育의 性格, 目標, 內容의 變遷과정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獨逸의 통일 전 교육통합과정과 시사점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統一教育方案을 모색하였다. 즉 統一教育의 개념을 정립하고 統一教育의 方向을 설정했으며 그에 따른 統一教育의 기본 내용과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統一教育方案을 摸索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포용하려는 의식을 교육시켜주는 일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양 주민들은 상이한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와 장치를 형성하며 50년을 넘게 살아왔다. 이같은 제도적 이질성은 인식상의 이질화를 수반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와 인식이 공유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도 상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남하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다시 남북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이 통일과정에는 무수한 갈등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를 이같은 점을 미리 사실적으로 인지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주지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호 극복에서 포용, 공존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統一教育의 變遷史를 돌아보면 統一教育은 통일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反共教育期’ → ‘統一·安保教育期’ → ‘統一教育期’를 거치는 동안 북한을 ‘敵對關係와 對決의 相對’ → ‘對話와 對決의 相對’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對話와 包容의 相對’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統一教育은 민족의 당위로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統一教育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統一教育의 핵심적인 내용인 남북간의 異質化 극복과 同質性 回復에 관한 것은 실제 교과 내용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

獨逸의 예를 보면 그들은 분단 이후 우리와는 달리 분단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서독은 동서독간의 긴장완화에 앞장서서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통합을 위하여 體系的인 統一教育이 이루어져 獨逸統一을 이룩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獨逸統一後 5년이 지난 지금 ‘國土의 統一’ ‘制度와 貨幣의 統一’은 이룩했지만 ‘사람의 統一’ ‘마음의 統一’은 이룩하지 못하고 ‘統一後遺症’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컨센서스 결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意識과 生活文化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통일후 동질화 과정에서 나타날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 지향적 인간상과 民族同質性 回復을 길러내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民族共同體 意識을 涵養하고 統一文化 創造에 이바지하는 統一教育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방법도 지금까지의 주입식 수업방법을 탈피하여 아동 스스로가 학습하고 느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 즉 집단 탐구식 수업 모형, 토론식 수업 모형,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수업 모형, 개념 수업 모형, 비교분석 수업 모형 등을 도입하여 아동 스스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統一教育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統一教育을 담당하는 교사는 제도와 환경을 타하기에 앞서 스스로 統一教育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찬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둘째, 현직교사들에 대하여 통일연수 기회의 확대이다. 현재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합한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해 잘 알고 統一教育에 관련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統一教育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교사 연수는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이므로 統一教育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들로 하여금 북한 및 통일 관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일이 꿈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統一教育센터’를 지역별로 건립,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統一教育에 관한 교사 중심의 연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교과연구와 컴퓨터, 영어, 방송, 서예, 민주시민교육, 열린교육, 인성교육 등이 교육청(제주도인 경우) 별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統一教育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統一教育 연구회가 조직되지 않은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사들 간에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統一教育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研究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강광식 외(1989),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정구(1991),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고성준(1992),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대왕사.
- 교육부(1993), 『국민학교교육과정연수자료』, 교육부.
- _____ (1996), 『교사용 지도서(도덕과)』,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교육정책자문회의.
- 국토통일원(1990),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 권오정 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 김경웅(1995), 『북한체제 사회화론』, 박영사.
- 김국신 외(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한울 아카데미.
- 김문환(1991),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 김형찬(1991),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문용린(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민병찬(1992), 『신통일론』, 고려원.
- 송자 외(1996), 『통일사회로 가는 길』, 오름.
- 신현정(1991),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 양호민 외(1994),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출판.
- 윤덕희, 김도태(1992), 『남북사회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이기원 외(1995), 『통일대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상우(1995), 『함께사는 통일』, 나남출판.
- _____ (1986),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증보판, 서강대학교출판부.
- _____ (1987), 『통일 한국의 모색』, 박영사.
- 이윤숙(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 정세구(1983), 『초·중·고등학교 국민윤리교육』, 교육과학사.

정영국(1994), “‘땅의 통일’에서 ‘사람의 통일’로.” 공성진의, 『미리 가본 통일 한국』, 동화출판사.

최명(1991),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원.

한국교육개발원(1993),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4), 『내가 받은 북한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1993),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94), 『한반도 통일의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1992), 『북한 오늘과 내일』, 도서출판평화.

2. 論文 및 기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대평화연구소 편(1990),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논총』 제4집,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법문사.

고성준 외(1992),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세미나 주제 발표.

_____ (1993), “내외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제3집.

교육정책자문회의(1991), “민족동질성 회복 교육정책,” 교육정책자문회의.

권세기(1993), “통일교육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통일한국의 새로운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김동성(1994),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모형과 국민 정치의식 경향.” 『한국과 국제정치』 94년 봄·여름(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김영수(1995),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김영수(1996),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 한국정치학회 '96 하계학술대회(96. 6. 27-6. 29)
-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94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제5권, 통일원.
- 김항원, 강근형(199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1996), “중 고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통 통일정책 포럼자료집.
- 문용린(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정책 자문회의.
- 문용린 외(1995), “남북통일 대비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연구위원회.
- 박용현(199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원 주체 세미나 자료『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통일원.
- 박종태(1992), “통일 안보교육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진표(1994),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신상조(1992), “학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3월호.
- 손경우(1990), “국민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비판적 분석,” 『교육비평』, 창간호, 푸른나무.
- 양성철(1987), “남북한 비교 한국정치학 연구,” 『한국정치 연구』, 창간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 양영식(1995),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주통일론』, 통일인수원.
- 이순교(1995),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분석,” 『동아연구』 제29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이양수(1994), “초등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8권, 진주교육대학교.
- 이온죽(1990),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점 분석,”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 종합평가』, 통일원.
- 이재봉(1991), “한국 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상보(1994), “통일여건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세구(1984), “통일 안보교육 교수 기법,” 『국토통일 안보교육』, 13집.
- _____ (1994), “건강한 통일관의 교육 좌담,” 『교육월보』 9월호.
- 최인환(1991),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통일문제 연구』 3권.
-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6월호.
- 한국교육개발원(1993), “통일교육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교육지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겨울호.
- _____ (1996),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산 아카데미연구원 주최, 제2회 통일교육 세미나(96. 6. 12.) 주제발표 논문.
- 한명희(1992),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3월호.
-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 _____ (1994), 『오늘의 북한』, 교육부.
- _____ (1994),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교육월보』, 10월호.
- 국어정보학회(1994), 『등불』, 10월호.
- _____ (1995), 『등불』, 10월호.
- 민족지성(1988), 『민족지성』, 4월호, 7월호.
- 통일원 통일정책실(1996), 『통일백서』.

Birgit, Brock – Utne(1987), Education for Peace : A Feminist Perspective, Oxford and New York : Pergamon Press.

Evans, Karen and Ian G. Haffendn, Ina G.(1991), Education for Young Adult, London and New York : Routedge.

Furnham, Adriam and Stacey, Barrie(1991),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Society, London and New York : Reutledge.

Kim, Hak JooN(1977),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 A Comparative Study, Seoul : Seoul National Univ. Press.

Langeveld, W.(1980), “Political education as a Principle : Problems, Examples and Ideas,” Korea & Worl Affairs, vol.4, No.4.

(Summary)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Ko, Sung-Hyo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e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new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unification environment. To do this, I analyzed the realities and problem of on-going unification education with reference to the ideal of unification. Then tried to define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get the lessons in the educational integration of unified German. Finally I groped the new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To develop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first of all, to teach how to embrace each other is important.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many conflicts will be accarred which we expect or we don't expect. So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attitude of compromise will be needed.

Secondly, we need to develop the "national homogeneity recovery education", we found out that though the divided German unified in territory, the unification sequela was big because of un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of mankind.

Thirdly, the present spoon-feeding instruction should be substituted for new method. The new methods are such as the inquiry instruction model, the dialogical instruction, the comparatve analysis model. We should adopt them according to content.

Forth, for the higher quality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oportunites of training for the teachers who are reponsible for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enlarged. To encourage the teachers and support the study of unification education is necessary.

Finally,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shduld be founded to offer newly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that is located every province, will serve as realizing unification from drea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1996.